

전일동향

전일대비 11.50원 상승한 1,449.40원에 마감

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1.50원 상승한 1,449.4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5.60원 상승한 1,443.50원에 개장했다. 글로벌 위험회피 분위기에 환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아울러 국내증시 약세로 인한 커스터디 매수에 환율은 추가 상승하며, 1,449.4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6.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2.98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43.50	1450.00	1441.60	1449.40	1447.00
엔화	935.92	947.19	934.73	940.38	-	
유로화	1650.64	1665.91	1650.28	1665.10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77	-6.35	-12.02
결제환율(수입)	-1.2	-5.26	-10.08	-18.2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강달러 완화에...1,440원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00)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49.40) 대비 8.60원 하락한 1,438.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강달러 진정 등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ADP 미국 10월 민간고용은 전월비 4.2만명 증가하며 전월치(-2.9만) 및 예상치(3.0만)를 상회했다. 미국 10월 ISM 서비스업 PMI는 52.4로 전월치(50.0) 및 예상치(50.4)를 상회했다. 한편 전일 진행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관련 변론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상호관세 정책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달러화는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예상을 웃돈 미국 경제 지표와 저가 매수세 유입에 모두 상승 마감했다. 금일 환율은 강달러 완화 등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환당국 속도조절을 위한 미세조정 경계감 및 수출업체 고점매도 물량 등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증시 외국인 매도세 및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은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36.20 ~ 1446.2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0695.2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8.60원 ↓
	■ 美 다우지수 : 47311, +225.76p(+0.4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1.0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82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